

# 日本人 拉致 事件에 관한 연구

## - 가족회 결성을 중심으로 -

이수익\*  
japan9999@naver.com

### <目次>

- |                  |                  |
|------------------|------------------|
| 1. 들머리           | 4. 「家族会」의 結成     |
| 2. 日本人 실종 사건     | 4.1 「家族会」의 結成 背景 |
| 3. 拉致 피해자에 대한 증언 | 4.2 「家族会」의 結成 過程 |
|                  | 5. 마무리           |

主題語: 拉致(kidnap), 家族会(a family get-together), 失蹤(disappearance), 北韓(North Korea), 日本人(Japanese)

## 1. 들머리

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前 日本 首相이 北韓을 訪問했을 때 北韓에서는 北韓 工作員에 의한 日本人 拉致 事實을 인정하였으며, 拉致해온 사람 중에 이미 8명은 죽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런 사실이 日本 言論을 통해 報道되자 많은 日本人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다. 하지만 日本人 拉致 事件에 대한 言及은 1988年 3月 參議院 予算委員會에서 하시모토 아쓰시(橋本敦) 의원의 發言이 있었고, 日本 政府도 이미 拉致 事件이 北韓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國家公安委員長인 가자야마 세이쿠(梶山靜六)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1978년 이후 「日本人 行방불명 事件」에 관해서 「北朝鮮による拉致の疑いが十分濃厚」<sup>1)</sup> 하다는 發言등을 통해서도 日本 政府가 拉致 事件에 대해 北韓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자야마 세이쿠의 답변은 日本人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日本 政府도 拉致 問題 解決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만약 日本 政府가 拉致 問題에 대해 인식한 순간부터 국제사회에 北韓의 犯罪 事實을 알려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동시에 日本 國民들에게도 北韓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사전 조치를

\* 한국국제대학교 관광일어학과 교수

1) 佐藤勝巳(2004)『北朝鮮による拉致を考える』明成社, p.38

취했다라면 더 많은 拉致 事件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日本 政府는 그것을 무시해 왔던 셈이다. 결국 이러한 日本 政府의 안일한 태도가 지속적인 拉致 事件을 가능하게 하였고, 日本人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따라서 日本人 拉致 問題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日本人 실종사건의 현황, 김현희(金賢姬)에 의한 大韓航空機 爆破事件, 요코타 메구미(横田 めぐみ) 事件과 被害者 家族連絡會 結成 등을 통해 拉致 事件이 対北 外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日本人 실종 사건

1963년 5월 11일 데라코시 다케시(寺越武志)가 두 명의 숙부와 함께 이시가와현 노토반도(石川県 能登半島) 앞바다로 고기잡이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된다. 다음날 아침 해상 8km 지점에서 어선만 発見되고 세 사람의 行方은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家族들은 海難事故라고 판단하여 葬禮禮式을 치른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1987년 죽었다고 생각했던 숙부로부터 갑자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왔다.

北朝鮮で幸せに暮らしている。叔父の一人は死亡していたが、武志は結婚して子供もいる。2)

편지를 통해 北韓에 生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케시 어머니는 당시 社会党 시마자키(嶋崎) 의원의 도움으로 다케시를 만나기 위해 訪北한다. 監視員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만난 다케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행방불명될 당시의 상황을 説明한다.

清津の漁船員が海で遭難していた3人を救助し命を救った。亡くなった叔父は酒を飲んで翌朝起きたらベッドから落ちて死んでてた。3)

위의 다케시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다케시 일행은 조난을 당하였고, 北韓 어선이 자신들을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케시가 監視員들 앞에서 그렇게 主張하고 실제 狀況이 그렇더라도 당시 事故 現場은 분명히 日本 영해 내였고, 또 해난구조를 하려면 상대국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왜 24년간 아무런 연락을

2) 梶奈津子(2002)『拉致の悲劇』高木書房、p.22

3) 前掲書、『拉致の悲劇』、p.22

주지 않았던 것인가? 그리고 日本으로 편지를 보낸 후 숙부가 갑자기 죽은 理由는 무엇이며, 또한 숙부의 유골을 왜 日本으로 보내주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다케시도 일절 말하지 않는다. 그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日本에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自身の 부모조차도 자유로이 만날 수 없게 되어 있다.

1977년 9월 19일, 구메 유타카(久米裕)가 石川県 能登町 宇出津 해안에서 拉致된다. 이 事件으로 石川県 경찰은 拉致 실행범을 붙잡아 난수표 등을 압수한다. 난수표에 의해 北韓에서 日本으로 잠입하는 스파이에게 보내오는 암호방송을 해독하는데 成功하였고, 구메 유타카를 拉致한 자는 北韓에 사는 여동생을 人質로 삼아 계속 협박당하던 在日朝鮮人이었다는 事實을 밝혀낸다. 사실 이러한 部類의 工作員들은 日本에서 많이 活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北韓에 있는 家族들이 처벌받고 強制收容所로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北韓 当局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의 경우도 北韓에서 파견된 工作員들로부터 스파이 教育을 받고 日本人을 拉致하도록 指示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自身과 채무관계가 있는 구메 유타카를 拉致 対象으로 한 것이다. 유타카는 그의 甘言利說에 속아 우시즈(宇出津)로 갔고, 그날 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北韓 工作員들에게 拉致된 것이다. 구메 유타카를 北韓 工作船에 인도하고 旅館으로 되돌아 온 그는 旅館 主人의 申告로 警察에 逮捕되었고, 그를 추궁한 結果 北韓의 指令을 받아, 19日 우시즈 海岸에서 北韓 工作員에게 引渡하였다는 자백을 받아낸다. 그러나 그는 拉致된 구메 유타카의 意思가 確認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불기소된다. 4)

1977年 11月 15日 오후 6시 반경 니이가타시(新潟市) 스이도초(水道町)의 요리이(寄居) 中学校 女学生인 요코타 메구미가 배드민턴부 연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행방불명된다. 現場은 바다 옆으로 밤이 되면 어두운 곳이었다. 메구미는 당시 13살에 불과하여 이 事件은 北韓에 의한 日本人 拉致 事件 中에서도 가장 잔혹한 事件으로 기록된다.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에 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해 家族들은 事故 당했는지, 누군가에게 人質로 잡혀갔는지, 혹은 무슨 고민이 있어 자살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주변을 찾아다닌다. 警察에도 申告해 대대적으로 搜索도 했지만 단서조차 発見되지 않았고, 警察犬을 動員해 봤지만 요코타 메구미에 관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다. 人質 事件일까도 생각했지만 犯人으로부터 아무런 요구는 없었고, 바다에서도 요코타 메구미의 死體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北韓의 소행일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딸의 行方을 찾아다녔다. 행방불명된 지 일주일이 지난 11月 22日 요코타가 거주하는 新潟 地方 新聞인 新潟日報에서 「女子 中学生 下校 途中 이미 一週日間 돌아가지 않고」라는 題目으로 요코타 메구미의 行方을 묻는 記事가 報道되지

4) 前掲書、『拉致の悲劇』、pp.25-26

만, 拉致 可能性에 대한 言及은 전혀 없었다. 5)

1978年 6月 東京都 豊島区에서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가 호텔에 1살과 3살의 아이를 남겨둔 채로 홀연히 모습을 감춘다. 그 후 大韓航空機 爆破犯人 金賢姬의 証言으로 北韓에 의한 拉致 事實으로 밝혀진다. 다구치 야에코는 北韓에서 金賢姬에게 日本語와 生活習慣을 가르친 教育계 이은혜(李恩惠)로 살고 있었다. 金賢姬의 証言은 다음과 같다.

彼女は拉致された時、日本に残して来た我が子を想い、泣きながら張ってくる乳をしぼっていた。6)

위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구치 야에코는 北韓에 拉致된 뒤에도 日本에 두고 온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事實을 알 수 있다. 이후 다구치 야에코는 金賢姬와의 1년 8개월 간 同居生活을 끝내고 소식이 두절된다.

1978年 7月 7日 후쿠이현(福井県) 오바마시(小浜市)의 목수인 지무라 야스시(地村保志)와 그의 약혼자 하마모토 후키에(浜本富貴恵)가 데이트 도중에 행방불명된다. 11월에 結婚하기로 되어 있었고 예약까지도 끝난 상태였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레스토랑이었고 車는 小浜公園 전망대에서 発見된다. 金賢姬가 본 「목수 일을 잘 하던 사람(大工仕事が上手な男性)」가 지무라 야스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7)

1978年 7月 31日 니이가타현(新潟県) 가시라자키시(柏崎市)에서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薫)와 그의 연인 오쿠도 유키코(奥土祐木子)가 데이트 도중에 행방불명된다. 이후 하스이케 가오루의 車는 海岸에서 가까운 図書館 駐車場에서 発見된다. 1993년에 亡命한 北韓 工作員이었던 안명진(安明進)은 하스이케 가오루의 사진을 보고 다음과 같이 証言하고 있다.

最初の本『北朝鮮拉致工作員』を書いた時点で私は、蓮池薫さんについては何も觸れなかった。しかし、その後、日本に帰国した蓮池さんの顔を見て、私は確信した。金正日政治軍事大学で目撃した日本人教官の一人に間違いない、と。彼は市川修一さん同様、秘密機関である大学で働いていたのである。

蓮池さんは帰国後も「金正日政治軍事大学など知らない」と言っているらしい。確かに私が彼を目撃した88年から90年当時、同大学の名稱は「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直屬政治学校」だったから、そう言うのかも知れない。しかし名稱がどうであろうと、彼が工作員養成機関で教官をし

5) 前掲書、『拉致の悲劇』、p.27

6) 上掲書、p.28

7) 上掲書、p.29

ていた事実は否定できないものだ。8)

위의 証言에서 安明進은 金正日政治軍事大学에서 教官으로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까지 主張하고 있다.

1978年 8月 12日 鹿児島県 후키아게하마(吹上濱)에 석양을 보러간다고 하고 外出한 이치가와 슈이치(市川修一)와 마스모토 루미코(増元るみ子)가 行방불명된다. 海邊에서 이치가와 슈이치의 샌들 한 짝이 뒤집힌 채 發見된다. 이치가와 슈이치는 北韓의 工作員 養成所에서 安明進과 對話를 나누었다는 事實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私が市川修一さんを初めて目撃したのは、1988年のことだった。金正日政治軍事大学で行われる記念行事には、「大学創立記念日」、「金正日誕生日」、「金日成誕生日」、「労働党創建記念日」、「忠誠の集まり兼贈り物伝達式」などがあるが、こうしたときに、教官たちへの表彰が行われる。表彰をよく受けていたのは「日本語講座」。そして、その代表として賞を受け取っていたのが市川さんであった。(中略)

ふつう教官は一人では行動しないが、私が大学内で市川さんを目撃したときは、二人並んで、それも他の日本人教官ではなく朝鮮人教官と一緒に歩いていた。身長は165から166センチ、その当時の年齢は30代後半という印象を受けた。9)

위의 安明進의 主張처럼 이치가와 슈이치는 北韓에서 「日本語講座」教官으로 北韓의 각종 기념일에 表彰을 받았던 事實을 미루어 보아 1978年 拉致되어 北韓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1978年 8月 15日 도야마현(富山県) 다카오카시(高岡市) 아마하라시(雨晴) 해안에서 커플을 4인조 남자들이 拉致를 시도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라 도망친 事件이 發生한다. 이 때 犯行現場에 남겨진 수갑, 자갈과 피륙봉투, 끈 등의 証物品은 대부분 日本에서는 입수 불가능한 共産圏의 제품임이 밝혀졌고, 이것으로 인해 拉致 事件은 日本人이 아닌 外国人의 犯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1978年 6·7·8월에 걸쳐 도쿄·후쿠이(福井)·니이가타(新潟)·가고시마(鹿児島)·도야마현(富山県)에서 5건의 拉致 事件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富山県 해안에서 발생한 1건은 미수로 끝났다. 이 미수 事件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犯人은 男性 4인조였다고 한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팔과 다리는 수갑과 끈으로 묶은 다음 머리에는 주머니를 뒤집어 씌워 가까운

8) 前掲書、『拉致の悲劇』、p.43

9) 前掲書、『新証言・拉致 横田めぐみを救出せよ』、pp.122-123

숨으로 끌고 갔으며, 犯人은 조용히 하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끼고 犯人들이 도주해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失蹤事件들이 中央 言論에 報道되지 않은 관계로 日本人들의 耳目을 집중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1980年 1月 7日 산케이신문(産經新聞) 1면에 「3건의 戀人 疑問 蒸發事件」이라는 題目 아래 「外国 情報機關이 関与?」라는 題目 기사가 나온다. 처음으로 中央 言論이 失蹤事件을 보도한 셈이고, 이로 인해 각지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日本人 失蹤事件에 대해 비로소 日本人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당시 新聞 記事에는 北韓과의 관련성에 대한 言及은 전혀 없었다.

1985年 6月 오사카(大阪)의 중화요리집 요리사인 하라 다다아키(原勅晃)가 미야자키시(宮崎市) 아오시마(靑島) 해안에서 拉致당한다. 하라 다다아키를 拉致한 사람은 北韓 工作員인 辛光洙 외에 수 명의 在日朝鮮人이었다. 辛光洙(辛光洙)는 많은 在日朝鮮人의 協助를 얻어 日本 社會에 잠입하였고, 그 협조자 중의 한 사람이 중화요리집 주인으로 그의 가게 종업원인 하라 다다아키를 표적으로 삼아 拉致한 事件이다. 이후 辛光洙는 越南工作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하라 다다아키 명의의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日本과 유럽, 北韓 등을 往來하게 된다. 그러나 辛光洙는 1985年 6月 28日 韓國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하던 중에 韓國 정보기관에 의해 간첩죄로 체포되어 하라 다다아키 拉致 事件을 自身이 주도하였다는 事實을 진술하게 된다. 韓國 國家安全企畫部에 의하면 辛光洙는 北韓 최고 수뇌부로부터 「日本人을 拉致하기 위해 在日 工作을 계속하라」는 지령을 받고 친척이 없는 하라 다다아키를 拉致했다고 진술한다.<sup>10)</sup>

北韓 工作員이 직접 「日本人을 拉致했다」고 인정했고, 하라 다다아키 행세를 한 日本 旅券 등이 물적 증거로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日本의 주요 言論은 이 事件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지만 1978년에 일어난 失蹤 事件이나 다른 拉致에 대해서는 별다른 報道가 없었다. 따라서 日本 政府는 辛光洙의 진술을 통해 다른 事件과의 관련성이나 사실에 대해 규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3. 拉致 被害者에 대한 証言

1987年 11月 29日 KAL 858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사라졌고, 12月 11일이 되어서 겨우 미얀마와 타이의 국경부근인 안다만 해안에서 KAL機 機體 일부분이 發見된다. 그 禍편을 조사한

10) 前掲書、『拉致の悲劇』、p.32

결과 추락 원인은 폭발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韓國에서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폭과 직전 이부다비 空港에서 내린 15명의 旅客 行方을 파악하고 내린 15명 중에는 하치야 신이치(蜂谷真一)와 하치야 마유미(蜂谷真由美)라는 日本人 男女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위조여권을 사용해서 바레인까지 간 것을 알아낸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요르단 航空 로마행 여객기에 탑승하기 직전 체포된다. 出入国管理事務局에 연행된 두 사람은 심문 직전에 각각 담배 속에 숨기고 있던 청산가리를 마시고 男性은 즉사하고 女性은 겨우 목숨을 구한다. 그 후 体力을 회복한 하치야 마유미를 바레인 政府는 韓國 政府로 인도한다. 韓國에서는 12월 15일 하치야 마유미는 바레인에서 서울로 압송된다. 하치야 마유미가 서울로 압송되자 모든 言論들이 이 事件을 集中報道하였고 사람들의 관심도 金賢姬에게 集中된다. 그리고 12월 16일 大統領 選挙에서 노태우 후보가 当選되고, 韓國 政府에서도 金賢姬에 대한 본격적인 搜查 를 시작한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1988年 1月 15日 한국 安全企劃部에서는 이 事件에 대한 公式 搜查結果 를 發表하게 된다.

하치야 마유미의 本名은 金賢姬이고, 아버지는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貿易代表部 水産代表 로 근무하고 있다. 또 자살한 하치야 신이치(蜂谷真一)는 本名이 金勝一이고 실제로 金賢姬와 는 부녀지간이 아니며, 金勝一은 日本에서 生活한 경험이 있는 老人이었다. 北韓 金正日 總書記의 명령을 받아 日本人 行세를 하게 되었고 서울 올림픽 開催를 저지하기 위해 大韓航空機 를 爆破했던 것이다. 11)

이들이 사용한 위조여권은 日本에 있던 北韓 工作員 李京雨, 일본명 미야모토 아키라(宮本明)가 위조한 것이며, 金賢姬와 金勝一은 이 위조여권으로 事件 發生 3년 전부터 이 위조여권 으로 러시아, 헝거리, 오스트리아, 홍콩, 마카오, 中国 등의 海外旅行을 하고 있었다. 당시의 狀況을 金賢姬는 다음과 같이 陳述하고 있다.

最初は空港などで身分がばれないかとか、日本人に会ってばれたらどうしようかとか、心配ばかりしていました。けれども、やってみて、あ、できるんだと安心しました。後は、なりますしの心配はせず、爆破という任務をいかにうまく成功させるかに集中できました。12)

위와 같이 金賢姬는 처음에는 위조여권 使用을 두려워했지만, 몇 번의 使用으로 두려움을 克服하고 폭과임무를 遂行하였다고 告白하고 있다. 또한 金賢姬는 平壤外國語大學 日本語科

11) 박강성주(2006.2)「대한항공 858기 사건의 공문화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북한 대학원, pp.19-23

12) 佐藤勝巳(2004)『北朝鮮による拉致を考え』明成社, p.56

出身이지만 보다 日本人처럼 보이기 위해 北韓 平壤 郊外の 「招待所」라는 施設에서 日本語와 日本 生活習慣을 배우기 위해서 1年 8個月에 걸쳐 李恩惠라는 女性과 共同生活을 하게 된다. 李恩惠는 以後 警察 調査 結果 1978年 6월에 東京에서 拉致되어 北韓으로 간 다구치 아에코(田口八重子)임이 밝혀진다.

한편 金賢姬의 証言에서 밝혀진 日本人 李恩惠의 存在에 대해서는, 누가 李恩惠인가, 失蹤된 戀人들 중 마스모토 루미코(松本るみ子), 하마모토 후키에(浜本富貴恵), 오크도 유키코(奥土祐木子) 등의 얼굴 사진을 게재해 「딸이라면 빨리 돌려달라」라는 拉致 被害者 家族들의 성토도 게재된다. 또 요코타 메구미의 「메구미」도 漢字로 쓰면 「恩惠」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요코타 메구미의 父母도 情報 收集에 努力하게 된다. 그러나 与論의 反応은 金賢姬의 미모나, 越南 工作의 方法, 그녀가 어떤 생각으로 大韓航空機를 폭파시켰는지, 지금은 反省하고 있는지 등에 주목한다.

또한 拉致 問題와 連関해서는 「누가 李恩惠인가?」라는 問題에 注目해 實際 北韓에 日本語 教育 担当하는 日本人 拉致 被害者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注目하지 않았다. 事實 日本政府는 北韓에 日本人이 拉致된 事實을 認知한 始点부터 이 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日本 政府 次元으로 拉致問題 解決을 위한 努力은 없었다. 拉致 被害者 救出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日本에 北韓 工作員이 어떻게 잠입하고 어떻게 活動을 하는지, 그에 대한 対策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把握하지 않았다.

日本 政府는, 金賢姬의 証言이 있는 2개월 후인 1988年 3月 26일에 열린 国会 予算委員會에서 日本共産党 所属의 하시모토 아쓰시(橋本敦) 参議員이 3件的 戀人 失蹤事件과 1件的 未遂事件에 대해 警察庁 警備局長에게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한다.

拉致事件について言いますならば、単に問題はこれだけではなくて、昭和53年7月と8月、わずか二ヶ月間に4件にわたって若い男女のカップルが突然姿を消すという事件が立て続けに起こっているのです。これは極めて重大な事件ではありますが、福井、新潟、鹿児島そして富山、こうなりますが、1件は未遂であります。

警察庁、簡単に結構ですが、この3件の事件の概要について述べてください。(13)

위의 하시모토 아쓰시의 質問에 대해 警察庁 警備局長은 犯人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拉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13) 荒木和博(2003)『拉致救出運動の2000日』草思社、p.87



昭和53年の7月7日に福井県の小濱市で起きた男女の行方不明事件についてでございますが、当該男性は7月7日に同伴者とデートに行くと言って軽貨物自動車であつたまま帰宅しなかつた。自動車はキーをつけたままの状態で見つけられております。

それからまた、同年7月31日に新潟県の柏崎市で起きた事件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やはり当該男性が家の者に、ちょっと出かけてくる、自転車を貸してくれと言って自転車で出かけたまま帰宅しなかつた。自転車は柏崎の図書館前に置いてあつたのが見つけられたわけでありまして。当該女性は、勤務先の化粧品店で仕事が終わった後、同伴者とデートすると店の従業員に話しておりまして、これも家出などの動機はございません。

それから三つ目に同年8月12日に鹿児島で起きた事件でございますが、当該男性は同伴者を誘つて濱に、海岸に夕日を見に行くと言って出たきり帰宅しなかつ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それから、富山県で起きた未遂事件のこと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この事件につきましては、8月15日の午後6時30分頃、海岸端を歩いていた被害者である男女が自分達の乗車してきた自家用車の駐車場に帰るために防風林の中を歩いていたということで、そうしたら前方を歩いていた4人組がいきなり襲いかかつて、防風林内に引きずり込んでゴム製猿ぐつわあるいは手錠、タオル等を使用して縛り上げて、それぞれ寝袋様のものに入れたと。14)

또 大阪에서 활동한 辛光洙가 1985年 韓國에서 逮捕되어 하라 다다아키를 拉致에 대해 證모를 밝히지만,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國際的 謀略」이라고 發言한다. 또 「李恩惠」라는 人物에 대해 真相을 파악해 北韓 工作員에 의해서 日本人이 拉致된 것이 事實이라면 重大한 人權 侵害이며, 명백한 犯罪 행위인 것과 同時に 日本의 主權에 대한 명백한 侵害가 된다고 答弁한다. 여기에 대해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静六)는 다음과 같이 答弁한다.

昭和53年以來の一連のアベック行方不明事犯、恐らく北朝鮮による拉致の疑いが十分濃厚でございます。解明が大変困難ではございますけれども、事態の重大性にかんがみ、今後とも真相糾明のために全力を盡く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し、本人はもちろんでございますが、ご家族の皆さん方に深いご同情を申し上げる次第であります。15)

위의 답변은 日本 政府의 代表 機關인 国会에서 「北韓에 의한 拉致가 濃厚」하다고 처음으로 認定한 重要な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런 답변 內容은 當時 日本人들에게 注目받지 못하였고, NHK에서도 国会 中繼放送 정도였으며, 国会 中繼放送을 보는 사람이 적은 關係로 日本 国内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없었다. 설령 日本人을 拉致한 國家가 北韓이 아니라고 해도, 外国人이

14) 前掲書、『拉致救出運動の2000日』、pp.8-88

15) 上掲書、p.93

나 外國의 情報機關에 의해 日本人이 拉致되었을 可能性이 있다면 日本의 主權과도 關係되는 큰 問題이다. 따라서 日本 政府가 責任있는 措置를 취했어야 했지만 별다른 措置가 없었다는 점을 問題點으로 指摘할 수 있다.

## 4. 「家族會」의 結成

1997年 3月 25日 요코다 시게루(橫田滋)를 中心으로 拉致된 7人의 家族들이 모여 『北朝鮮による拉致』被害者家族連絡會(略稱 「家族會」)를 結成한다.

「家族會」를 結成한 被害者 家族들은 오로지 「拉致된 家族을 되찾겠다」는 一念으로 一致團 結해서 活動하게 된다. 「家族會」를 結成하기 이전까지는 各 家庭의 個別 問題로 認識되어 모든 苦痛을 스스로 堪耐하고 있던 家族들이 1997年 2月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議員이 衆議院 予算委員會에서 요코다 메구미(橫田めぐみ)의 實名을 挙論하며 拉致 事件에 대해 質問한 것이 契機가 되어, 拉致 被害를 당한 處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서로 慰勞하면서 連合하게 된다. 이러한 被害者 家族들의 連帶感이 日本 国内 輿論의 支持를 얻는데 있어서 重要 役割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日本內的 支持속에 「家族會」가 胎動하게 되었으며, 「家族會」의 充實한 活動이 日本人들에게 많은 共感을 얻고 支援까지 이끌어 내게 된다.

### 4.1 「家族會」의 結成 背景

2002年 9月 北·日 頂上會談이 열리기 전에는 日本人 실종 사건이 外國의 정보기관과 관련이 있는 犯罪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혹은 있었다. KAL機 爆破犯 金賢姬의 証言을 통해 北韓 工作員 敎育 담당자 중에 日本語 敎育을 担当하는 日本人이 있다는 事實이 暴露되면서 北韓 工作員에 의한 日本人 拉致說이 說得力을 얻고 있는 狀況이었다. 그러나 日本 政府에서는 이 問題에 대해 積極的인 解決 努力을 하지 않았으나 『現代코리아』의 「私が『金正日の拉致指令』を書いた理由」라는 記事가 계기가 되어 拉致 事件에 대해 다양한 事實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現代코리아』 1996年 10月號에 掲載된 이시다카 켄지(石高健次)의 「私が『金正日の拉致指令』を書いた理由」라고 하는 記事는 「誘拐拉致犯罪は残酷である。失踪者の肉親はその精

神を蝕まれていく。北朝鮮の工作組織の手で誘拐・拉致されたと見られる日本人は、私が調べたかぎり13人による。」<sup>16)</sup>라고 記述되어 있으며, 記事의 구체적內容은 다음과 같다.

1987年に起きた大韓航空爆破事件の犯人金賢姫に日本人化教育をした李恩惠なる人物は、のちに東京都豊島区に住む日本人女性と断定された。これを受けて、92年11月、北京でおこなわれた日朝交渉の場で日本側は彼女の所在確認を北朝鮮側に要請したものの、相手方は「これはわが国とは無関係の問題で、これ以上日本側の発言は聞かない」と一方的に席を立った。それ以来日朝交渉はストップしたままだが、日本政府は北朝鮮を追及するアクションをまったく起こしていない。<sup>17)</sup>

위의 引用文에서 이시다카 켄지의 주장처럼 1992年 11月の 北·日間の 北京会谈에서 北·日 修交 交渉의 중단원인이 日本人 事实 問題에서 비롯되었다는 을 알 수 있다.

日本 해안에서 戀人들이 잇달아 拉致되었던 1~2年前인, 1976年이었다. 13歲인 少女 요코타 메구미가 北韓으로 拉致된다. 메구미는 學校에서 下校하는 途中, 北韓 工作員에 의해 拉致된 것이다. 메구미는 영리하고, 공부도 잘 하는 優秀한 學生이었다. 메구미가 拉致된 以後에 「朝鮮語를 習得하면 엄마에게 돌려보내 주겠다」는 北韓側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열심히 배우게 되지만, 18살쯤 되면서부터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事实을 깨닫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 記事는 『現代코리아』에서만 報道되었기 때문에 日本人들은 이러한 事实에 대한 情報도 없었으며 또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現代코리아』10月号가 나오고, 2개월 後인 12月 14日, 『現代코리아』 發行者인 사토 가쓰미(佐藤勝巳)가 自己 故鄉인 니이가타(新潟)에서 강연을 마친 後에 마련된 간담회에서 雜誌에 실려 있던 13歲의 少女가 拉致되었다는 事实을 言及하게 되는데, 그 講演會에 參席했던 新潟縣警察幹部가 「요코타 메구미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한다.<sup>18)</sup> 요코타 메구미는 自殺할 理요코타 메구미이며, 그녀가 北韓에 있을 可能性이 대두되게 된다. 그러자 『現代코리아』도 없고, 搜索을 해도 유품도 發見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의 失蹤으로서 잘 알려진 事件이었다. 이 같은 으로 方向을 잡지 못하던 事件은 拉致된 主人公이 아』 研究所에서는 1997年 1·2月号로 「身元이 確認된 拉致 少女」라는 題目으로 사토 가쓰미가 이시다카의 記事를 基礎로 「新潟 海岸에서 行방불명된 少女는 요코타 메구미가 아닐까?」라는 記事를 싣는다.

16) 前掲書、『拉致救出運動の2000日』、p.14

17) 上掲書、p.15

19) 이재형(2004) 「북·일관계의 역사적 조명 및 양국 관계정상화 전망」 『평화연구』 제12권1호, p.21

그러나 当時 『現代코리아』는 그다지 有名한 雜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코타 메구미 父母는 自身の 딸이 北韓에 있다는 記事를 알지 못한다. 이 雜誌는 日本 内에서도 겨우 몇 군데의 書店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雜誌이다. 또 이 雜誌의 內容은 北韓에 대한 갈럼, 韓國에 대한 갈럼, 在日韓國·朝鮮人 問題에 대한 갈럼 등 韓半島에 興味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対象으로 하기 때문에 요코타 메구미 父母도 딸이 北韓에 拉致되었다는 記事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戀人 失蹤 事件이 北韓의 犯行일 可能性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警察에 問議를 해 보았지만, 警察에서는 요코타 메구미의 年齡이 너무 낮은 것이나, 다른 케이스와 다른 部分이 많았기 때문에 北韓과는 關係가 없다고 判斷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7年 1月 21日 午後의 戀人 失蹤 事件부터 北韓에 의한 拉致 事件을 調查하고 있던, 共産黨 衆議員 議員인 하시모토 아쓰시의 秘書 호모토 다츠키치(兵本達吉)가 『現代코리아』의 記事를 보고 「댁의 따님이 北韓에 살아 있어요」라고 요코타 메구미 父母에게 알려준 것이다.

요코타 메구미 父母는 『現代코리아』記事를 읽고, 13少女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이나, 배드민턴이라는 單語, 쌍둥이 女同生이라는 말을 통해 요코타 메구미라 느꼈다고 한다. 當時 요코타 메구미는 13살이었고, 배드민턴 選手로 동아리에서 練習을 하고 歸家하던 중에 없어졌다. 하지만 요코타 메구미의 失蹤 當時의 言論 情報를 基礎로 몸값을 要求하는 事件이 일어나기도 해서 「13살」이나 「배드민턴」 같은 情報는 누구나 아는 情報로 信憑性이 낮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쌍둥이」라는 情報는 어디에도 報道되지 않은 것이었다. 요코타 메구미의 父母는 長女 메구미 아래에 쌍둥이 男同生이 있었지만, 男同生의 身分이 노출되면 新변에 問題가 생길 것 같아 公開하지 않았던 것이다. 「쌍둥이 女同生」이라는 記事는 誤報이지만, 「쌍둥이」라는 事實은 家族이나 親戚 外에는 모르는 事實이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單語 自体가 信憑性이 있다고 判斷한다. 「쌍둥이 女同生」 대신 「쌍둥이 男同生」라고 한 것은 잘못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現代코리아』報道를 통해 요코타 메구미는 北韓에 의해서 拉致되었을 可能性이 높아졌고, 그때까지 「행방불명되었던 少女」가 20年 後 「北韓에 의해 拉致된 少女」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衆議員인 니시무라 신고(西村真吾)議員이 国会에서 요코타 메구미 事件에 대해 追궁하게 된다. 以前에도 国会를 통해 拉致 問題에 대한 質問은 있었지만,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한 것에 비해, 이때의 質問은 産經新聞 2月 3日字에 「北韓 亡命 工作員 証言 『20年前, 13歲 少女 拉致』 新潟의 失蹤 事件과 韓國으로부터 情報」라고 一面과 社会面에서 報道한다. 또한 2月 3日에 発売된 『AERA』라는 雜誌에서도 「20年前의 新潟 少女 失蹤 事件에 대한 새로운 証言 『北韓에 살아있다』」라는 題目으로 요코타 메구미의 行방불명 當時의 狀況이나 요코타 메구미 父母의 心境 등에 대해 揭載한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요코타 메구미」라는 實名이

直接 報道된다. 戀人 失蹤 事件 때만 해도 「外國의 関与?」 등 曖昧한 記事가 全部였는데, 이것을 契機로 北韓에 의한 拉致 問題라는 事實을 報道하기 始作한다. 그러나 一般人인 被害者 家族들의 実名이 公開되어 노출되는 데에 葛藤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怨恨이나 몸값을 要求하는 誘拐 事件도 아니고, 國家의 目的을 위해 發生한 拉致 事件이기 때문에 더욱 複雑한 様相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被害者 家族들의 最終 目標은 実名 報道를 통해 日本内에서 同情 与論을 造成하여 拉致者들의 구출을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1997年 2月 10日号의 『AERA』에서는 요코타 메구미의 実名이 公開된다. 이에 대해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다 사키에(横田早紀江)는 自身の 著書 『めぐみ、お母さんがきっと助けてあげる』에서 딸의 実名 公開에 대해 葛藤한 끝에, 結果적으로 1997年 2月 3日 요코타 메구미라는 実名으로 『AERA』에 掲載되어 産経新聞의 朝刊 1面과 社会面に 요코타 메구미의 写真과 함께 北韓에 拉致되었다고 크게 報道된다. 勇氣를 내어 実名으로 報道했던 것이 北韓에 의한 拉致 可能性을 確認시키는 契機가 되어 다른 被害者 家族들에게도 断念하지 않고 끝까지 拉致된 被害者 救出을 國家나 与論에 呼訴할 勇氣를 주었고, 같은 立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家族会」를 만들게 된다. 拉致된 被害者들의 実名을 举論한 것은 拉致問題 解決에 있어 画期的인 事件이었다고 評價할 수 있다. 그리고 拉致된 家族들의 安全을 걱정은 되었지만, 日本 国内 与論에 呼訴하는 最善의 方法으로 判断해서 생긴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金賢姬가 KAL機 爆破 事件으로 逮捕되어 「北韓 工作員 教育 担当者 中에는 日本人 教育 担当」이 있다는 事實을 暴露했던 時期로, 요코타 메구미가 北韓에 살아있을 可能性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日本内에서도 拉致 事件에 대한 関心이 高潮된다.

이러한 拉致 事件에 대한 높은 関心に 의해서 요코타 메구미에 대해 拉致 當時의 狀況을 再構成하여 報道하기 시작하자, 13歲의 어린 少女가 北韓에 拉致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보편화되게 된다.

1997年 2月 7日 TBS 저녁 뉴스 프로그램 『ニュースの森』에서는 「20年 前 사라진 딸이 北韓에? 女中生 失蹤事件의 解明되지 않는 疑問에 접근한다.」는 題目으로 뉴스 프로그램의 中心 素材가 된다. 그 手法이 韓國에 있는 脫北 工作員의 인터뷰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말 잔혹한 事件이 日本에서도 자행되었다는 감상적인 분위기도 강해진다. 그러나 當時 報道 内容은 被害者 家族의 눈물에 의한 感性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런 犯罪 事實도 없는 어린 少女가 갑자기 外國 工作員들에 의해 입에는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로 작은 배 밑바닥에 갇혀 北韓으로 끌려간 事件은 전혀 想像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事件이다. 그러나 日本人들은 아이가 拉致된 부모의 슬픔에는 関心을 기울이지 않고, 興味 위주로만 생각한다. 家族들은 스스로 実名을 밝히고 言論에도 出演하여 事件 解決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 이러한 拉致 家族들의 적극적인 努力이 日本人 拉致 問題에 대한 근본적인 対策을 마련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2 「家族會」의 結成 過程

拉致 報道의 행위자로서 拉致 被害者 家族들의 얼굴이 實際 言論에 노출되면서 보다 많은 日本人들이 共感하게 되고 일시적으로나마 日本人들의 關心을 集中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코타의 実名 公開를 契機로 拉致 被害者 家族들은 요코타 家族을 中心으로 집결하게 된다. 그리고 1997年 3月 25日에는, 戀人 사이로 갑자기 사라진 지무라(地村), 하마모토(浜本), 이치카와(市川), 마스모토(松本), 하스이케(蓮池)와, 유럽에서 유학 중에 행방불명되어, 北韓으로부터 書信을 받은 아리모토(有本) 등이 『北韓에 의한 拉致』 被害者 家族 連絡會를 結成한다. 요코타 메구미 아버지인 요코타 시게루(横田滋)가 「家族連絡會」의 代表가 되면서 다음과 같은 「呼訴文」을 發表한다.

家族이 北韓에 의해 拉致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도 北韓은 人權을 보장받을 수 없는 國家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없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拉致당한 사람들이 殺害당할지도 모른다고 不安感 때문에 代案을 찾을 수 없었다. 被害者 家族들은 失蹤된 家族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回避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處地에 있는 拉致 被害者 家族들이 모여 情報를 주고받고, 拉致 被害者들의 日本 帰国 方法을 摸索할 수 있게 된다. 그런 目的으로 「家族連絡會」가 結成된 것이다. 그들은 「家族連絡會」의 結成으로 서로 團結하면서 積極적으로 拉致 被害의 不當性을 알리는 活動을 하고, 輿論 造成을 통해 社會의 關心을 확산시켜 나간다.

拉致 被害者 家族들은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도 家族들을 救出해 내려는 共同의 關心과 意志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日本 政府나 言論에 대해서도 拉致 된 家族을 救出해 달라는 要求를 組織의 名義로 呼訴하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判斷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個人 被害者 家族이 日本 政府나 言論에 呼訴해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經驗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戀人 失蹤 事件의 拉致 被害者로 2002年에 日本으로 돌아온 지무라 야스시(地村 保志)의 아버지 경우는 몇 번이나 現地の 警察庁에 가서 진정도 해보고, 「外国工作機關이 関与?」라는 記事가 게재되었을 때도 東京의 警察庁까지 진정하러 갔지만, 警察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무라 야스시와 함께 행방불명된 하마모토에 대해서도 失蹤의 原因이 하마모토의 複雜한 生活 環境 있다는 理由로 家族들의 主張을 外面했고, 言論도 「怨恨에 의한 誘拐」, 「怨恨에 의한 三角關係」라는 식으로 흥미 위주로 報道한다.

이렇게 被害者 家族이 個人的으로 日本 政府나 言論과의 距離를 유지하면서 극도로 은밀한 生活하고 있었지만, 「家族連絡會」의 結成으로 하나로 뭉쳐 具體的인 救出을 위한 活動을 계속함으로써 깊은 連帶感을 形成해 나간다. 「家族連絡會」를 結成한 다음날에는 外務省, 警察庁에 신청해 国会에서 記者 會見도 가진다. 家族들은 拉致된 自身의 아이들 寫真을 가지고 나와 言論에 呼訴한다. 「家族連絡會」結成 以前에는 13歲 어린 少女가 拉致된 事件으로 同情을 샀던 요코타에게만 視線이 集中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요코타 이외에도 北韓에 拉致된 사람들이 多數 있다는 事實, 그리고 그 家族들의 얼굴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다. 「家族連絡會」의 結成을 전후해 요코타 메구미가 失蹤된 新潟에서는 3月 13日의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실린 코지만(小島)라는 사람의 「메구미씨 救出에 支援의 고리를」이라는 記事를 契機로 “어떻게든 협력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요코타 메구미씨 拉致 糾明 救出 發起人會」가 結成된다. 그 後 各 県에서도 「救う會」가 結成된다. 그러나 各 県の 「救う會」는 自身들의 県에만 局限시켜 그 県에서 失蹤한 拉致 被害者 救出에만 局限하게 된다. 全国 組織으로서 日本의 모든 拉致 被害者를 救出하기 위한 共同的 努力을 해 나가가기까지는 時間이 더 필요해 보인다.

## 5. 마무리

以上과 같이 日本人 拉致 事件은 1963年의 데라코시 다케시 行방불명 事件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北韓의 소행임이 알려지면서, 1997年 4月 15日에는 「北韓 拉致 疑惑 日本人 救援 議員 聯盟」이 自民黨 나카야마 마사키(中山正暉) 議員을 會長으로 하여 衆議員 78名, 參議員 45名이 入會 議員으로 結成된다. 또한 北韓에 의한 拉致疑惑이 있는 家族들도 일치단결하고, 각지에서 支援団体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政治家들 사이에서도 運動의 기틀이 만들어진다. 国会에서도 5月 1日 參議員 決算委員會에서 自民黨의 요시카와 요시오(吉川芳男) 議員의 質問을 받은 政府는 「北韓에 의한 拉致 事件이라고 認識하고 있다」는 事實을 最初로 公式 發表한다. 또한 지금까지 北韓에 拉致된 嫌疑가 있는 日本人을 「6件 9名」에서 요코타 메구미를 包含해 「7件 10名」이라고 修正 發表한다. 그러나 「議員 聯盟」이 組織되었지만, 議員들 사이에 서로 意見 衝突이 일어나면서 休眠 狀態에 빠진다.

이렇게 北韓 工作員들에 의한 失蹤 事件이 일어난 지 20年 이상 지난 시점에서 결국 北韓의 소행이라는 事實이 알려지고, 日本人들은 그 事實에 놀라면서 어떻게든 拉致者들을 구하려고 움직임이 나타난다. 拉致 被害者의 家族들이 아침 街頭에 서거나 署名 活動을 하면서 救出을 呼訴해 1997年 6月에는 救出을 要求하는 서명에 同參한 者가 35万 名이 되었고, 8月 27日

「拉致 糾明 救出 發起人會」가 모은 署名 50만 5천 건과 福井県 小浜市로부터 拉致된 지무라 야스시와 하마모토 후키에의 救出 要求 署名 7만 건을 합쳐서 當時 日本 首相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에게 提出한다. 그리고 10月에는 現在 被害者 家族과 함께 第一 熱誠的으로 救出 活動을 하여, 實質的인 리드 役割을 하고 있던 『北韓에 拉致된 日本人을 「救う會」』라는 團體가 關東 地方을 中心으로 結成된다.

會長에는 北韓 情勢를 잘 알고, 요코타 메구미가 北韓에 拉致된 事實을 雜誌에 처음으로 掲載한 『겐다이코리아』의 編集長인 사토 가쓰미가 任命되어 署名 活動, 募金 活動, 政府나 国会 등 關係 機關의 陳述·要請, 内外 매스컴·與論에 대한 어필, 情報收集·分析, 啓蒙 活動, 家族會·議員 聯盟·他地域에서 같은 目的으로 組織된 機具와의 提携 등의 活動을 担当하게 된다. 「救う會」는 北韓에 대해서 「그냥 무서운 나라」라는 程度의 認識 밖에 없는 家族들을 代身해서 지금까지 北韓에 의한 拉致 事件의 解決을 위해서 日本 政府에 대해 対策 마련 등 實務的인 作業을 하고 있다.

1997年을 起點으로 北韓에 拉致된 被害者 家族들이 모여 結成한 「家族連絡會」, 政治家들의 모임인 「救う會」 등의 團體가 發足되어 多樣한 方向에서 拉致 問題 解決을 위해서 活動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모두 日本 政府에 대해서도 要求할 수 있는 能力은 가지고 있지만, 「家族連絡會」發言이 實際 被害 當事者로서 가장 큰 存在感을 가지게 되었다.

### 【參考文獻】

- 강태훈(2000)『일본외교정책의 이해』오름  
 김영춘(2002)『북·일 정상회담 분석』통일연구원  
 유석렬(1988)『북한 정책론』법문사  
 박강성주(2006.2)「대한항공 858기 사건의 공론화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북한 대학원  
 이근엽(2004.12)「북한의 대일협상 행태 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형(2004)「북·일관계의 역사적 조명 및 양국 관계정상화 전망」『평화연구』제12권 1호  
 정지윤(2006.2)「북일 관계의 역사적 변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佐藤勝巳(2004)『北朝鮮による拉致を考える』明成社  
 畠奈津子(2002)『拉致の悲劇』高木書房  
 安明進(2005)『新證言·拉致 横田めぐみを救出せよ』廣濟堂  
 荒木和博(2003)『拉致救出運動の2000日』草思社

논문투고일 : 2018년 04월 03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4월 18일  
 1차 수정일 : 2018년 05월 15일  
 2차 수정일 : 2018년 05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5월 17일



〈 要 旨 〉

日本人 拉致 事件에 관한 연구

- 가족회 결성을 중심으로 -

이수의

일본인 납치 사건은 1963년의 데라코시 다케시 행방불명 사건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북한의 소행임이 알려지면서, 1997년 4월 15일에는 「北韓 拉致 疑惑 日本人 救援 議員 聯盟」이 自民黨 나카야마 마사키(中山正暉) 議員을 會長으로 하여 衆議員 78名, 參議員 45名이 入會議員으로 結成된다. 또한 北韓에 의한 拉致疑惑이 있는 가족들도 일치단결 하고, 각지에서 지원단체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치가를 사이에서도 운동의 기틀이 만들어진다. 國會에서도 5월 1日 參議員 決算委員會에서 自民黨의 요시카와 요시오(吉川芳男) 議員의 질문을 받은 정부는 「北韓에 의한 拉致 事件이라고 認識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公式 發表한다. 또한 지금까지 北韓에 拉致된 혐의가 있는 日本人을 「6건 9명」에서 요코타 메구미를 포함해 「7건 10명」이라고 수정 발표한다. 그러나 「議員 聯盟」이 組織되었지만, 議員들 사이에 서로 意見 충돌이 일어나면서 휴면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北韓 工作員들에 의한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결국 北韓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日本人들은 그 事實에 놀라면서 어떻게든 拉致者들을 구하려고 움직임이 나타난다. 拉致 被害者의 家族들이 아침 街頭에 서거나 署名 活動을 하면서 救出을 呼訴해 1997년 6월에는 救出을 要求하는 서명에 同參한 者가 35만 명이 되었고, 8月 27日 「拉致 糾明 救出 發起人會」가 모은 서명 50만 5천 건과 福井縣 小濱市로부터 拉致된 지무라 야스시와 하마모토 후키에의 救出 要求 서명 7만 건을 합쳐서 當時 日本 首相 하시모토 류타로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10월에는 現在 被害者 家族와 함께 제일 열성적으로 구출 활동을 하여,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北韓에 拉致된 日本人을 「救う會」라는 단체가 關東 地方을 중심으로 결성된다.

會長에는 北韓 情勢를 잘 알고, 요코타 메구미가 北韓에 拉致된 事實을 잡지에 처음으로 게재한 『젠다이코리아』의 편집장인 사토 가쓰미가 임명되어 署名 活動, 募金 活動, 政府나 國會 등 關係 機關의 陳述·要請, 내외 매스컴·여론에 대한 어필, 정보수집·분석, 계몽 활동, 家族會·議員 聯盟·他地域에서 같은 目的으로 조직된 기구와의 제휴 등의 活動을 담당하게 된다. 「救う會」는 北韓에 대해서 「그냥 무서운 나라」라는 정도의 인식 밖에 없는 家族들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北韓에 의한 拉致 事件의 해결을 위해서 日本 政府에 대해 대책 마련 등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1997년을 기점으로 北韓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결성한 「家族連絡會」, 정치가들의 모임인 「救う會」 등의 단체가 발족되어 다양한 방향에서 拉致 問題 解決을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모두 日本 政府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家族連絡會」발언이 실제 피해 당사자로서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다.

A study on the kidnapping of Japanese by North Korea

Lee, Soo-Ick

Kidnapping Japanese citizens have happened since the lost of Deracosi dacasi in 1963, since then the federal of parliament has been founded on march 15, 1997. It consisted of 78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45 the House of Councilors, which was led by a chairman Nakayama Masaaki 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the parliament, It was officially announced that japanese government had recognized Kidnapping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on May 1.

To encourage the association's initiatives, support organizations were created one after the other in every part of Japan. These associations experienced some difficulties in convincing the public of the need for action. Howev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gatherings, public meetings with the individuals concerned, and demonstrations across the country, the Japanese people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problem and ask the government to act to repatriate victims abducted by North Korea. The associations ask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plement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A petition launched and had more than 55 thousands signatures on August 27, 1997.

In addition to these organizations, meetings of governors and Commission for National Consultation of Regional Assemblies on the abduction issue have recently reinforced the movement. During the past 20 years, their association has become very well known throughout Japan, and has gained wide approval and support for their combat. The Association of the Families of Victims Kidnapped by North Korea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have worked (as they still do today)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and government action, but the AFVKN has played a major role.